



오방선생 환갑을 기념해  
의재선생이 그린 산수화

손자 최협씨 의재미술관 기증



## 흑조 오딜의 32회전 연기, 관객들 숨막히는 탄성만…

■ 국립발레단 '백조의 호수' 7월 6~7일 광주문화예회관

### 백조 군무신 가장 아름다운 장면... 차이코프스키 음악 압권

클래식 발레의 진수를 선사할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광주 공연을 갖는다. 7월 6일 오후 8시, 7일 오후 5시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 공연 축제' 참가작이기도 한 '백조의 호수'는 전 세계 발레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레퍼토리다.

지그프리드 왕자와 백조 오데트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낸 '백조의 호수'는 나탈리 포트먼 주연의 '블랙 스완'의 소재로 활용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더욱 친숙해졌다.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국립발레단(예술감독 최재지)이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는 정상급 무용수들의 춤과 화려한 의상, 완벽한 무대 등이 어우러진 명품 공연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는 무용계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는 유리 그리가로

비치의 볼쇼이 버전으로 1막 가운데 광대의 36회전, 궁정의 월츠 군무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명의 발레리나가 청초한 오데트와 요염한 흑조 오딜을 동시에 연기하는 '백조의 호수'에는 명장면들이 많다.

1막2장, 어슴푸레한 새벽의 기운안에서 펼쳐지는 세마리 백조, 네마리 백조, 백조 군무신 등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또 발레리나의 최고 기술로 꼽히는 흑조 오딜의 32회전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며 1막과 2막에 추가된 악마와 왕자의 2인무도 역동적이다.

'백조의 호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

는 게 바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이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3

대 발레 작품으로 꼽히는 '백조의 호수'의 음악은 특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2막에 등장하는 '정경' 등은 음악만으로도 자주 연주된다.

화려한 캐스팅도 눈길을 끈다. 6일 첫공연

무대에 오르는 수석무용수 김지영은 국립발레단의 스타 중 한명이다. 1997년 최연소로 국립발레단에 입단한 그녀는 2002년 네덜란

드 국립발레단에 들어가 주역무용수로 활동했다.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로마국립오페라발레단의 초청을 받아 '백조의 호수'를 공연하기도 했던 김씨는 2009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지그프리드 역으로 호흡을 맞추는 수석무용수 이동훈 역시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주는 무용수다.

7일 공연하는 정영재는 광주 출신으로 영국국립발레단 솔리스트로 활동하다 국립발레단에 특채됐으며 '백조의 호수'는 그의 주역 데뷔작이기도 하다.

티켓가격 8만8000원~2만2000원. 인터넷 구입 인터파크. 문의 062-220-0541, 1544-1555.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도시협, 7일 시민소통마당

### 바다와 어우러진 伊 색소폰 명품연주

'아카데미아 색소폰 콰르텟' 16일 여수엑스포 국제관



이탈리아의 명품 색소폰 연주가 초여름 여수 바다를 물들인다. 이탈리아 출신 4인조 연주팀 '아카데미아 색소폰 콰르텟'(Quartetto di Sassiophoni Accademia)이 오는 16일 오후 6시 여수세계박람회장 국제관 엑스포홀에서 감미로운 색소폰 선율을 들려준다.

엔리코 모리코네, 니노 로타 등의 주목같은 영화음악을 비롯해 '세발리아의 이발사'

등 로시니의 오페라와 피아졸라, 거친 등 명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연주팀은 지난 1984년 가에타노 디 바코(소프라노), 엔조 필리페티(알토), 주제페 베라르디니(테너), 파브리지오 파울레티(바리톤) 등 4명이 결성했다. 이탈리아와 해외에서 900여회의 콘서트를 가졌으며 캐나다, 독일 등 24개국에서 총 46회의 투어를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흙으로 빚어낸 자연의 숨결'

호남도예가회 회원전 7~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이용철 작 '시노유 다관'

호남대학교 출신 도예가들의 모임인 호남도예가회(회장 이용철) 열 두 번째 회원전이 7일부터 13일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다.

도예가 14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다기, 화분, 사발, 항아리 등 생활도자기와 예술성 있는 도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이용철씨는 백자 시노유 다관을, 라필 주씨는 현대적으로 디자인한 화기를, 김종근씨는 여러 종류의 흙을 섞어 만든 연리문항아리를 출품했다.

이 밖에도 김순희·김윤권·김은경·박남현·박은미·박형금·소금란·안균석·

이혜연·이화·최정인씨 등 다양한 작가의 도예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10-4607-1014.

/김미온기자 dok2000@kwangju.co.kr

[www.kjhr.com](http://www.kjhr.com)



기간: 2012년 3월 15일~8월 31일  
독일보청기 정품만 사용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족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Be natural  
Be delicious

창업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 25,000원
- 토·일·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U-square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